

“미얀마 구호” 불교계 나섰다

지난 5월 2일, 동남아의 대표적인 불교국가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로 7일 현재 2만 2464명이 사망, 4만1000명이 실종되고 100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불교계가 긴급구호에 나섰다.

6일 애도문을 발표한 조계종은 7일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직접 긴급성금 3000만원을 알 요르윈(R. Myo Lwin) 주한미얀마 대사에게 전달하고, 6월30일까지 전국사찰에서 모금활동을 벌이며 ‘미얀마 이재민 돕기 연등 밝히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한국JTS는 7일 긴급구호요원 3명을 미얀마로 급파해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위한 일정과 지원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구촌공생회와 로터스월드, 불교인권연대와 불교평화연대도 미얀마 군정(軍政)의 폭정에 관계없이 “미얀마 돕기에 불자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하며 6일부터 모금캠페인에 돌입했다.

미얀마 사이클론 희생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가장 먼저 애도를 표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주한미얀마 대사에게 사이클론 참사 피해복구 성금을 전달하면서, “많은 한국 스님들이 가서 수행하고 있는 미얀마는 30만명의 스님과 국민의 90%가 불자인 불교국가라서 더욱 정이 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위로했다. 이에 요르윈 대사는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이라와디와 양곤 지방이 오지에 속해 피해 집계가 늦어지고 있다”며 “어려운 때 돕는 사람이 친구다”라는 속담처럼 한국 불교계가 따뜻한 정성을 보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8일 전국 본말사에 긴급 공문을 보내 “모금함 설치, 이재민 돕기 연등 밝히기, 안내 현수막 게시, 봉축법요식에서의 성금 모금 동참 호소” 등의 지침을 내렸다. 조계종은 성금모금을 위해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023501-04-127811)를 개설했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현지구호활동을 위한 상황과에 들어간 상태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국제구호단체인 한국JTS(이사장 법륜은 현지



5월 7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알 요르윈 주한미얀마 대사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지관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지관 스님 성금 전달·JTS 긴급구조단 파견 조계종·교계 단체들 성금 모금활동 전개도

에 국제긴급구조단을 파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JTS는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 등 3명을 7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얀마로 파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지에서 시급히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 지원할 예정이다. 출국에 앞서 박지나 본부장은 “쉽게 접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곳보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채택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 각각 국제구호활동과 의료·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구촌공생회(대표 이사 월주와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도)도 모금운동에 나섰다.

6일부터 불자를 비롯한 대국민 성금 모금에 돌입한 지구촌공생회는 “이미 식량부족국가로 분류된 미얀

마는 이번 사이클론과 더불어 식량 위기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로터스월드는 6일 논평을 통해 “군부독재정권의 실정과 관계없이 미얀마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기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들도 미얀마 군부정권의 잔혹한 폭정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인권연대와 불교평화연대는 6일 호소문을 통해 “미얀마 돕기 성금과 기타 필요한 생필품을 모금하겠다”며 “특히 미얀마 어린이 돕기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미얀마 현지에서는 농작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와는

달리, 지난해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스님들이 이번에는 피해복구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 들었다. 외신들은 지난 2일 사이클론 강타 이후 스님들이 사원을 떠나 피해 복구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큰 피해를 입은 양곤과 이라와디델타 지역의 불교 사원을 이재민을 위한 임시 수용소로 내놓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며 돌보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닥친 엄청난 자연재해에 불교계가 나라를 초월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자리이타(自利利他)행을 실천하는 모습에 불자들의 관심과 성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성우·김강진 기자

금주 20면 발행합니다

TIP

불탑의 나라 미얀마는?

미얀마(옛 버마)는 5500만 여 인구 가운데 약 86%가 불교 신도다. 남성들은 대부분 1~2년 단기 출가할 정도로, 영구 출가한 승려 수만 해도 40만 명에 달한다. 또 사원 수는 5만 여개, 파고대불탑은 400만 개가 넘는 불교국가이다. 하지만 45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폭정으로, 급기야 지난해 스님들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이로 인해 사찰에는 출입금지령과 함께 수많은 스님들이 강제 연행되거나 희생되는 법난(法難)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업상담◆
민사·형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팩 스 031)387-5409
유대문 010-7504-4521 (강령회 변호사)
017-535-0685 (김진 변호사)
010-4486-3740 (김현 변호사)

‘비인기학과 통폐합’ 조치 東大 정체성 뭐야?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5월 7일 열린 102주년 개교기념식 및 UI 선포식에서 ‘세상을 깨우는 힘’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새 UI를 선보이며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하지만 5월 2일 중앙일간지에 “동국대, 경쟁력 없는 학과 퇴출”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면서 내년도 정원감축학과로 발표된 철학전공, 수학과, 물리학과, 사회학전공, 독어문화학전공 등 해당 학과의 교수·학생들이 반발해 교내는 어수선했다. 학교측의 ‘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 발표에 ‘기초학문 말살 정책’ ‘직업전문학교로의 퇴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스템은 입학경쟁률·재

심으로 비교해 서열을 매긴 것은 마치 시·소설·수필 등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처럼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임교수는 또 “독문, 철학 등은 이미 지난해 정원조정을 받았다. 특성학과 폐교를 위한 수순 아니냐”며 연이은 정원감소 방침에 깊은 우려를 내보냈다. 이명천 학사지원본부장은 “전국 대학의 모든 학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근거가 없다. 지난해는 재학생을 평가했지만 올해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은 학과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학교에서 자구책 없이 학교만 나무라라는

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 도입 갈등 심화 “경쟁력 강화” vs “직업전문학교로 퇴보”



동국대 교정에 걸린 ‘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 비판 현수막.

학률·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5년간 교내 평가 점수가 하위 1~8위 이내거나 하향조정지수가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학과를 통폐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계 한 연구자는 “종합대학은 종합병원과 같다. 내원 환자가 적다고 특정 진료과를 없애기 시작하면 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한 원로학자는 2007년 200억 규모로 시작된 정부의 인문학 프로젝트(HK사업)를 예로 들며 “지금은 인문학 특성화가 필요한 때”라며 안타까워했다.

독어문화학 전공 임호일 교수는 “타대학 동일학문과 비교한 것도 아니고, 동국대에 다른 학과들과 학문의적 요소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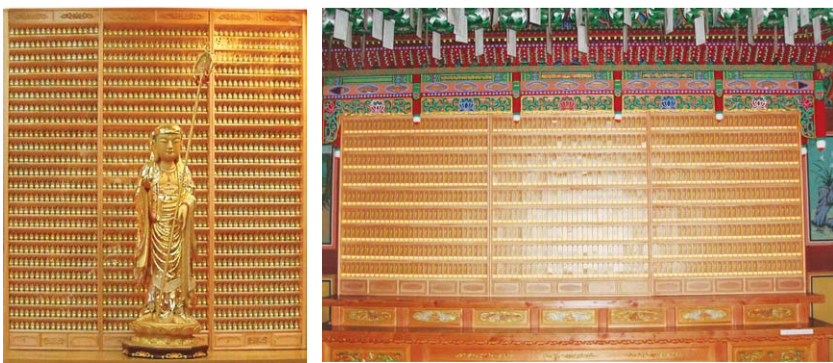
태도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경준 철학전공 학생회장은 “재직률 등을 따지기에 앞서 학교가 해당학과 학생들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묻고 싶다”며 항의했다. 또 “6일 학교측과 토론회를 가졌으나 학교 측은 전체적 발전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밀어붙이기에만 한다”고 말해 학교측의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여전히 교내 구성원들의 불신과 갈등이 있음을 보여줬다. 오 총장 취임 1주년, 개교 102주년을 맞은 동국대에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구성원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종섭 기자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종등

만월등(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경기도 하남시 교신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yeon.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